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이 시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성인애착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그리고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global self-esteem scale), 윤석빈(1999)이 개발한 정서조절 양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과 상관분석을 하였고,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애착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해하여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양식

[†] 교신저자 : 이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57 이화빌딩
Tel : 02-3668-4307, E-mail : sieunlee@knou.ac.kr

대학생 시기는 이후 독립된 성인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라 할 수 있다. 입시제도로 인한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생활방식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허락되는 급격한 환경변화, 정체성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 진로 선택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심리 내적·외적의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된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 및 발달과제로 인해 대학생들은 생애 주기 중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정서적으로 민감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정서조절은 한 개인이 인격체로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감정이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Thompson, 1994). 따라서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정신 병리와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Bonanno, 2001). 특히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양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Barett & Gross, 2001).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정서조절 양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적절한가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의 해소 정도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그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 나아가 정서조절의 실패는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게 되며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로 나타날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여러 심리치료자들은 정서조절의 실패를 정신병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내담자에게 다양한 정서조절기술을 습득시켜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치료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Fosha, 2000; Greenberg, 2002; Gross, 1999; Omaha, 2004; Southam-Gerow & Kendall, 2002). Greenberg(2002) 역시 내담자가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서조절 양식은 한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서조절 양식의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Morris와 Reilly(1987)는 여러 문헌을 개관하여 인지적 재구성, 문제지향행동, 친애행동으로 구분하였고, Thayer, Newman과 McClain(1994)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능동적 조절, 주의분산, 수동적 조절, 정서의 발산, 약물복용, 철회-회피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Gross(1998)는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 배치, 인지변화, 반응조정이라는 5가지 과정을 선행사건 초점적 양식과 반응초점적 양식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윤석빈(1999)이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가지로 구분한 정서조절 양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마다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의 수와 명칭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회피적이고 주의-분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구분을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구하여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앞의 두 조절 양식과는 별개의 양식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은 크게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범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지금까지의 정서조절 양식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의 정서조절 양식이 주로 개인의 심리내적 적응 및 부적응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어왔었다(Morrow & Nolen-Hoeksema, 1990; Thayer et al., 1994; 김희숙, 2006;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임민주, 2009; 임전옥, 2003; 한금선, 박은숙, 송준아, 김근면, 진종희, 강현철, 2007). 그러나 한 개인의 정서조절 양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먼저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 이론은 정서조절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관련성 있는 중요한 틀로 간주되어진다. Bowlby 이론의 기본 가정 중 하나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광범위한 조절 전략으로 내재화되어 개개인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애착 이론에서는 유아와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함께 행동한다고 간주한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재인용). 즉, 유아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정서적 위안을 추구하고, 양육자는 유아가 필요로 할

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한다. 이처럼 양육자의 가용성과 반응성에 따라 정서의 상호조절은 유아에게 내재화되고 점차 정서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으로 발달된다(Crawford, Shaver, & Goldsmith, 2007).

이와 같이 생애초기에 애착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 급격하게 발달된 애착체계는 자신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하나의 성격적 특성으로 굳어진다(Feeney, 1999; Mallinckrodt, 2000). 결과적으로 내적작동모델은 주요 애착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친밀감과 안정감의 조절과 충족을 중심으로 발달하며 개인적인 잠재력과 건강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제공하고,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즉, 생애 초기의 애착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된다. 성인으로 이어진 애착을 성인애착이라 부르는데, 이는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근접하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노라, 2000).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을 유아의 애착 형성과정과 동일시하고, Ainsworth, Blehar, 그리고 Waters(1978)가 확인하였던 안정, 회피, 불안/양가 애착의 세 가지 범주를 성인의 관계 영역으로 확장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는 성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회피적 애착 양식의 질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Bowlby(1973)의 내적 실행 모델을 근거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 부정의 표상을 구분하여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공포형으로 유형화한 4범주 척도를 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성인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 및 정서적 경험의 차이(Kobak & Sceery, 1988; Searle & Meara, 1999; 이귀선, 2001)를 다루어왔다. 연구 결과들은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 패턴이 상이하며, 불안정 애착유형인 사람들에 비해 안정 애착유형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는 대학생 시기의 애착이 정서조절 양식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양식의 기초를 이루는 차원과 애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AAS)를 통해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간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대학생의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애착과 같은 관계적 변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내재화된 자신에 대한 개념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정서조절 양식은 사회 정서적 경험의 상호작용과 함께 개인 내적 특성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기술로써, 관계적 변인과 함께 개인 내적 특성에 관한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본다면 한 개인의 정서조절 양식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재화된 자신에 대한 개념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다(Coopersmith, 1967; Rosenberg, 1985).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 자아상, 자기평가, 자기수용 등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며 특히 자아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판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평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Bryant(1989)의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Bryant는 긍정적인 경험을 보이게 하는 경향의 개인적 차이와 그러한 경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차 변인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내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그들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사람들이거나, 적어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덜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긍정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기분을 쉽게 약화시킨다. 또한 Heimpel, Wood, Marshall, 그리고 Brown(2002)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려는 동기가 더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성

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 변인인 애착과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에 의해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 양식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Thayer 등(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은 주의분산과 결합된 즐거운 활동을 추구하거나 직접적인 긴장 감소(예. 술과 담배들의 약물)를 정서조절 방식으로 보고하는 반면, 여성들은 소극적인 정서조절 행동(예. TV 보기, 쇼핑)이나 사회적 지지, 정서의 발산 등을 들었다. Nolen-Hoeksema(1991)은 우울에 대한 대처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남성들은 주의분산을 여성들은 반추에 의해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고, 정서조절 양식 중 어떤 양식이 적응 혹은 부적응과 관련되는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조절 양식이 발생되는지 그 차이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검증해보고, 이러한 중재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총 34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33명(39.1%), 여학생은 207명(60.9%)이었다. 평균연령은 21.6세(표준편차 2.35)이며, 학년은 1학년은 74명(21.8%), 2학년은 96명(28.2%), 3학년은 84명(24.7%), 4학년은 86명(25.3%)이었다.

측정 도구

성인 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하고 박은경(1993)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의 5점 척도이며, 각 6문항의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은 중요한 타인이 의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옆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고 있으며, 불안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운 정도를 묻고 있으며, 친밀은 중요한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세 가지 하위 차원의 점수 중 의존과 친밀 차원의 점수가 높고 불안 차원의 점수가 낮으면 안정 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Collins & Read, 1990). AA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75, .69, .72였다(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의존, 친밀, 불안 차원에서 각각 .68, .56, .74이었고, 전체 애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global 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최정아(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을 역산한 후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이었다.

정서조절 양식 체크리스트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이를 줄이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양식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윤석빈(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2003)이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척도이며, 능동적 양식 8문항, 회피분산적 양식 9문항, 지지추구적 양식 8문항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동적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행동을 하며 자신의 느낌, 혹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회피분산적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의를 분산하고 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회피를 한다. 또한 지지추구적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에서 각각 .79, .71, .85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 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정서조절 양식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 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변인은 정서조절양식 중 지지추구적 양식($t=-3.45, p<.01$) 뿐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지추구적 양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은 자아존중감($r=.49,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r=.22, p<.01$), 지지추구적 양

표 1. 성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n=133)	여 (n=207)	
성인애착	3.39(.47)	3.36(.44)	.45
자아존중감	3.05(.45)	2.98(.41)	1.48
능동적 양식	3.63(.55)	3.55(.62)	1.17
회피분산적 양식	3.06(.54)	3.09(.62)	-.40
지지추구적 양식	3.68(.64)	3.93(.64)	-3.45**

** $p < .01$

표 2. 성별에 따른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정서조절 양식의 상관관계

구분 변인	남자					여자				
	1	2	3	4	5	1	2	3	4	5
1. 성인애착	1					1				
2. 자아존중감	.496***	1				.509***	1			
3. 능동적 양식	.226**	.362***	1			.162*	.290***	1		
4. 회피분산적 양식	-.215*	-.029	-.145	1		-.248***	-.250***	-.185**	1	
5. 지지추구적 양식	.321***	.260**	.258**	.194*	1	.322***	.293***	.242***	-.092	1

* $p < .05$, ** $p < .01$, *** $p < .001$

식($r = .32, p < .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회피분산적 양식($r = -.21, p < .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r = .36, p < .001$)과 지지추구적 양식($r = .26,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은 자아존중감($r = .50,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r = .16, p < .05$), 지지추구적 양식($r = .32, p < .0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회피분산적 양식

($r = -.24,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r = .29, p < .001$)과 지지추구적 양식($r = .29,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회피분산적 양식($r = -.25,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방법은 중재적 중다 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불리운다(Aiken & West, 1991). 절차는 남녀 집단별로 성인애착을 먼저 투입

하고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으며 그 후에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그 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표 3. 남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ΔR^2	F
능동적 양식	성인애착	.226**	.051	7.029**
	자아존중감	.331**	.083	10.029***
	성인애착*자아존중감	1.496	.015	7.554***
	전체 R ²		.149	
회피분산적 양식	성인애착	-.215*	.046	6.322*
	자아존중감	.103	.008	3.710*
	성인애착*자아존중감	.631	.003	2.589
	전체 R ²		.057	
지지추구적 양식	성인애착	.321***	.103	15.049***
	자아존중감	.134	.014	8.582**
	성인애착*자아존중감	2.490*	.043	8.208***
	전체 R ²		.16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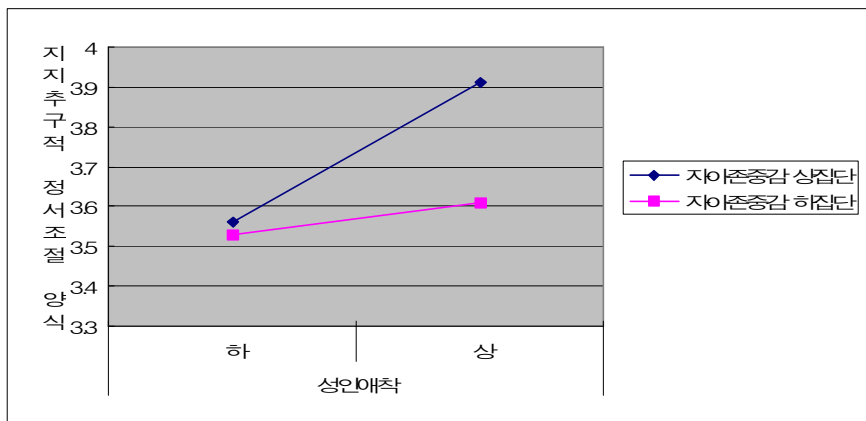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성인애착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집단 간 정서조절 양식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이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beta=2.490, p<.05$)만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정도에 따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상·하에 따른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 사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이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은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beta=1.889, p<.05$)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beta=-2.414, p<.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이 낮은 여학생에 비해, 성인애착의 정도에 따른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표 4. 여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ΔR^2	F
능동적 양식	성인애착	.162*	.026	5.552*
	자아존중감	.279***	.058	9.376***
	성인애착*자아존중감	1.889*	.024	8.202***
	전체 R^2		.108	
회피분산적 양식	성인애착	-.248***	.061	13.408***
	자아존중감	-.167*	.022	9.106***
	성인애착*자아존중감	-2.414**	.039	9.318***
	전체 R^2		.121	
지지추구적 양식	성인애착	.322***	.104	23.758***
	자아존중감	.174*	.022	14.729***
	성인애착*자아존중감	.714	.004	10.075***
	전체 R^2		.13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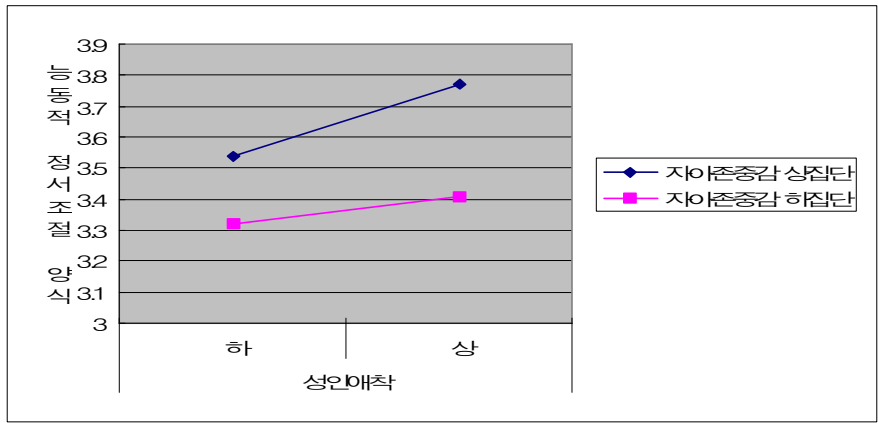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의 성인애착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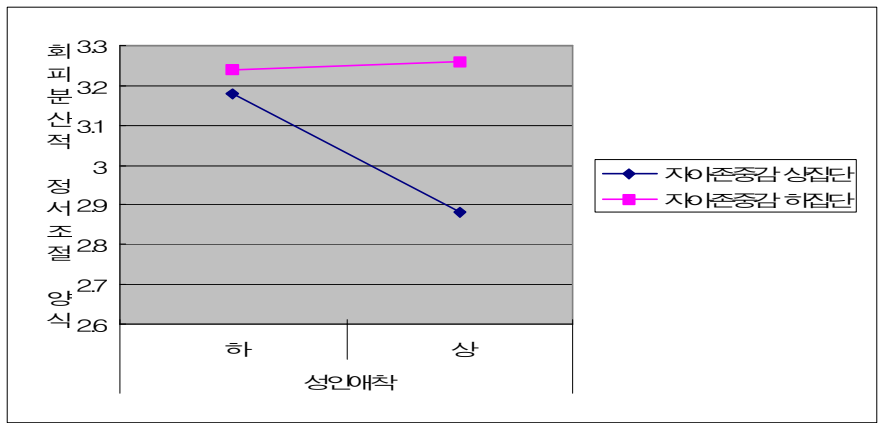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성인애착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상·하에 따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학생은 경우, 성인애착의 상·하에 따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은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예비 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피분산 양식과 능동대처 양식은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고, 지지추구 양식은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유안진 등(2006)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연구들(Eisenberg, Fabes, Ber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임희수, 박성연, 2002)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여학생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은 성유형화된 차별적 사회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지지추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유안진 등, 2006). 한편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지 않아 다른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가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다른 선행 연구들은 아동 혹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의 성평등 가치관 의식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희와 이시은(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의 경

우 여성성정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성성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자신의 성역할을 고수하고 있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남성적 특성(행위 주체성)과 여성적 특성(친교성)의 균형 있는 발달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양성성정체감 발달로 인해 행위주체적인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으로 인해 남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 예측된다.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없이 성인애착은 자아존중감,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만족과 같은 적응과 관련된 변인이나 외향성, 정서적지지, 정서표현성 등을 비롯해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되며,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은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민경환 등, 2000; 신주연 등, 2005; 윤석빈, 1999; 이귀선, 2002).

또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은 성인애착과의 관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에게 있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Caver, Scheier, 그리고 Weintraub (1989)의 연구, 그리고 Peralin과 Schooler(1978)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별 정서조절 양식 차이의 근원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인애착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인애착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에게는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해,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자아존중감의 정도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는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자기 관련적 개념이 적응 및 발달에 강력한 설명력이 있는 변인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owlby(1977)의 주장대로 인생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내적작동 모델의 형태로 지속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규제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은 Erikson의 주장대로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장한 이후의 발달은 누적된 발달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내적작동 모델은 전생애 동안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자기 관련적 개념이나 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자기 관련적 개념은 다시 후속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점성적 발달양상이 가정될 수 있다(장휘숙, 1998). 따라서 성인애착이 정서조절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학생의 건강한 정서조절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간의 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정서조절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1993; 유안진 등, 2006; 임희수, 박성연, 2002)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성들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들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능동적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나타나 다른 성별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정서조절 양식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대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Bem(1974)

은 생물학적 성에게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성역할만을 획득한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성뿐 아니라 그 반대 성에게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성역할 모두를 획득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양성성 모델을 주장하였다. 또한 Kilmartin(2007)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모두를 통합한 사람은 폭넓은 대처 전략을 가지게 되므로 성에 일치하는 특성만을 획득한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균형 있는 성역할 정체감의 발달로 인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성역할 갈등에서 벗어나 좀 더 자신에게 효과적이며 폭넓은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문화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의식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그러한 변화의 경향성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균형 있는 성역할 정체감 발달로 인해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다른 종류의 정서조절 양식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변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근접성을 추구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변 친밀한 사람과의 애착을 기반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이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폭넓은 정서조절 양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폭넓은 정서조절 양

식의 형성은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은 문제해결 중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하며, 혼자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성장하면서 배우고 이를 내재화한다(Levant, 1992) 이렇게 남성의 성역할을 내재화하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전통적인 남성성(독립성, 목적·과업·활동 지향성)에 위반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Robertson, 2001). 따라서 상담을 받는 행위가 자신의 성역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면,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남자 대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상담자와의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자 대학생들 상담함에 있어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신뢰로운 애착 형성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회피는 정서 경험을 일으키는 자극으로부터 받는 정서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부적응적인 이유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서는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회피적 양식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Campbell-Stillis & Barlow, 2007). 즉,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킨 상황이나 자신의 인지 및 행동양식을 적응적인 방향으

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 부정적 정서가 지속·유지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따라서 여자 대학생을 상담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정서경험을 함께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봄으로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서조절 양식은 같은 정서조절 양식이라도 대상에 따라 성별 차이와 그 효과 및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양식에서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발달에 따른 효과적인 정서발달 양식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한하여서만 이루어졌다.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간의 다양한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이외의 다양한 관련 변인들이 포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며, 정상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미례, 2000).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정서조절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긍정적 심리적 변인인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사용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심리적 변인도 함께 포함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희, 이시은 (2005).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기교육논총*, 14, 31-45.
- 김희숙 (2006). 정서조절 양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 애착유형과 대인 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선 (2001).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 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임민주 (2009). 정서표현의 양가성과 정서조절 양식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0-121.
- 최미혜 (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금선, 박은숙, 송준아, 김근면, 진종희, 강현철 (2007). 대학생의 대인관계 애착 유형, 정서조절,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6(2), 198-204.
- Aiken, I.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 Ainsworth, M. D., Blehar, M. C., & Waters, E.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ett, L. F., & Gross, J.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pp.287-31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421-431.
- Bonanno, G. A. (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 (pp.251-28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yant, F. B. (1989). A four-factor model of perceived control: Avoiding, coping, obtaining, and savoring. *Journal of Personality*, 57, 773-722.
- Ca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F.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ampbell-Stills, L., & Barlow, D., H. (2007). Incorporating emotion regulation into conceptualizations and treatments of anxiety and mood disorder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pp.542-55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644-663.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_____ (1981).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School form.*. San Diego: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Crawford, T. N., Shaver, P. R., & Goldsmith, H. H. (2007). How affect regulation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neuroticism.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9(2), 95-109.
- Eisenberg, N., Fabes, R. A., Ber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Fosha, D. (2000). *The transforming power of affect*. New York: Basic Books.
- Feeney, J. A. (1999). Adult attachment, emotional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6, 169-185.
- Greenberg, L. S.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_____ (1999).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 future. *Cognition and Emotion*, 13(5), 551-57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impel, S. A., Wood, J. V., Marshall, M. A., & Brown, J. D. (2002). Do people with low self-esteem really want to feel better? Self-esteem differences in motivation of repair negative moo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28-147.
- Kilmartin, C. T. (2007). *The masculine self*(3rd Ed.). New York: Sloan Publishing.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3), 502-51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vant, R. F. (1992).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masculin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3 & 4), 379-402.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 239-266.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 77-102.
- Morris, W. N., & Reilly, N. P. (1987).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mood: Theory and research. *Motivation and Emotion*, 11, 215-249.
- Morrow, J., & Nolen-Hoeksema, S. (1990). Effects of response to depression on the remediation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19-527.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rper & Row.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Omaha, J. (2004).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emotion regulation. EMDR and bilateral stimulation for affect managemen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Pera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obertson, J. M. (2001). Counseling men in college settings. In G. R. Brooks & G. E. Good (Eds.), *A new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with men*(pp.146-169). San Francisco: Jossey-Ba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r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pp.205-246). Orlando, FL: Academic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earle, B., & Meara, M. N.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47-158.
- Southam-Gerow, M. A., & Kendall, P. (2002). Emotion regulation and understanding implications for child psychopathology and thera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189-222.
- Thayer, R. E., Newman, J. R., & McClain, T. M. (1994). Self-regulation of mood: Strategies for changing a bad mood, raising energy, and reducing 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5), 910-925.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Fox(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Vol.59, pp.25-32). Society for Resaerch in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원 고 접 수 일 : 2009. 9.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2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2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Si-Eun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emotion regulation style. The participants were 340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instruments included: (a) adult attachment scale, (b) global self-esteem scale, (c) emotion regulation style check list. Results are as follows.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ale's adult attachment and their supportive-seeking emotion regulation style.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female's adult attachment and their active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elf-esteem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female's adult attachment and their avoidant/d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sty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counselor significant information of understanding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elf-esteem, emotion regulation style